



## 한눈에 보는 기원 논쟁

제럴드 라우 지음 | 한국기독교과학자회 옮김 | 새물결플러스

기원 논쟁 관련 입문서를 한 권만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필자는 이 책을 권하겠다. 그 이유는, 이 책에서 기원 논쟁의 다양한 상황을 탁월하면서도 균형있게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원 논쟁을 다루는 저자의 태도가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원 논쟁의 상황은, 그 내용의 진위보다 논쟁에 임하는 태도가 더 문제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책 전반에서 다양한 기원 논쟁 관련 의견을 존중과 배려하는 태도로 다루고 있으며, “기원 논쟁의 모든 당사자가 함께 모여 일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원 관련 연구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다(p.250).

만약 저자의 태도만 바람직한 것이었다면 필자는 이 책을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용도 탁월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기원 논쟁의 모든 의견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전개되는 내용을 6가지로 분류하여 허수아비 논쟁이 아닌 실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 아니라 소통 가능한 정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원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

는 감정이 앞서거나 전략적 목적으로 정당한 논쟁보다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일부 창조론 진영이나 진화론 진영에서 마찬가지로 벌어진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러한 프로파간다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라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신자들 사이에도 신학적 견해차로 서로에게 적대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 젊은 지구 창조를 받아들이는 많은 이는 성경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정확하다고 굳게 확신하면서, 다른 모델을 지지하는 이들을 가리켜 영원하고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를 항상 변동하는 과학적 생각 따위로 대체하려 함으로써 사단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타협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동시에 유신론적 진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오히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이야말로 과학으로 읽히도록 의도되지 않은 성경을 과학 텍스트로 해석하도록 몰아붙여 성경 해석의 원칙을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한다. 아울러 창조론자들이 명백한 과학적 사실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기독교에 마음의 문을*

신앙과 전공에 대해  
고민하는 신실한 기독교인 과학자,  
특히 기원 논쟁의 핵심에 해당하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저술하고 번역한  
기원 논쟁 관련 입문서

열 수도 있는 과학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고 비난한다(pp.213-214).

책의 이 단락은 현재 우리 나라 기원 논쟁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면을 그대로 적어놓은 듯 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기원 연구의 진정한 발전을 바란다면 서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태도를 개선하고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서문에서 저자는 잠언을 인용한다.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18:17). 현재에도 끝 없이 벌어지고 있는 기원 논쟁에서는 “불공정한 책략”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주요 이유중의 하나로 보인다(p.17).

1장은 도입부로서 세계관과 개인의 철학이 어떻게 과학의 전개와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이란 무엇인지, 기원 논쟁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쓰고 있다.

기원 논쟁의 근본에는 무엇이 영원한가에 대한 질

문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많은 부분은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거나 평가해 보지 않고 주변에서 가져온 의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신념”이 무엇이 영원한가 하는 질문의 답에 영향을 미친다(pp.25-26). 문화적 차원의 세계관과 삶 속에 형성된 개인의 철학이 기원에 관한 생각의 기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연주의, 유물론,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며, 유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이 얼마나 이 세상에 관여하는지를 믿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과학적 견해를 보일 수 있다”(p.29). 철학적 전제가 “추론의 방향에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아예 결론을 결정지어버리기도 한다”(p.43).

저자는 휴 거치(Hugh G. Gauch Jr.)를 인용하여 과학적 결론에는 필수 전제, 경험적 근거, 논리적 추론의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과학의 객관성은 전체로 보았을 때 특정 세계관으로부터 독립적일지도 모르지만”, 기원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과학자 개개인의 객관성 유지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p.34). 또한 과학만이 기원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방법이 아니며 다양한 학문 분야가 기원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p.36).

2장에서는 책에서 다루는 모델의 범위를 상술한다. 먼저 가설, 이론, 법칙, 모델에 대한 정의와 특성에 대해 다루며, 공정하고 생산적인 기원 논쟁을 하기 위해 적절한 용어 사용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기원 논쟁 참여자들이 서로 적대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논의가 더욱 극단으로 치닫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극단적인 견해들이 대중의 의견을 주도하고 있다. 양극단에 있는 그룹이 훨씬 쉽게 인식되는 미사여구를 사용할 뿐 아니라 자극적이고 명료해 보

이것은 과학과 종교 사이의 전쟁이 아니다.  
 그보다 과학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된 전쟁이며,  
 종교에 기대거나 종교의 언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철학적인 전쟁이다.

이는 의견을 피력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잘 각인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중의 눈에는 선택지가 둘밖에 없다는 식의 잘못된 이분법이 자리잡았다”. 또한, “중도적인 견해를 옹호하려는 사람들이나 양극단 간 논의를 발전시켜 보려는 사람들은 종종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는 처지에 놓인다”(pp.48-49).

그렇지만 실제로 기원 논쟁에 관련한 의견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어떤 철학을 받아들일느냐와 기원에 관해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는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초자연계와 자연계의 상호 작용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견해에 따라 기원에 관한 모델을 선택하게 된다(pp.52-53). 저자는 6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각각의 철학적 공리, 추론, 논리적 결론에 대해 간단히 다룬다. 1) 자연주의적 진화, 2) 비목적론적 진화, 3) 계획된 진화, 4) 인도된 진화, 5) 오래된 지구 창조, 6) 젊은 지구 창조의 개괄적 서술 후에 지적 설계 개념에 대해 따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진화적 창조”(evolutionary cre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델명에 포함

된 ‘진화’와 ‘창조’의 용어는 저자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이유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p.57).

3장부터 6장에서는 4가지 기원 문제, 즉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종의 기원, 인간의 기원 각 분야의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 탁월하게 다루고 있다. 이 단원들이 기원 논쟁과 관련된 실제 과학 분야를 다룬 부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여기서 다루기보다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저자가 각 분야의 내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 매우 노력한 흔적을 느낄 수 있었음을 밝히고 싶다.

7장에서는 각 모델에서 배울 점을 언급한다. 각 모델이 공헌한 부분과 더 다루어야 할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큰 그림을 보고 반대편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단순히 공격할 부분을 찾는 것 보다 상대방이 쓴 것을 실제로 읽고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2차 진술이 아니라 실제 증거를 직접 살펴봐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지나친 논쟁보다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p.249).

8장에서는 기원 논쟁의 핵심으로서 과학의 정의에 대해 다룬다. 과학의 정의는 “경험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과학적 방법론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p.253). 그렇다면 어떤 과학의 정의를 사용할 것인가? 과학주의는 치명적인 철학적 약점이 있으며 기원론 접근방법으로서는 부적합하다(p.255). “과학의 정의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과학자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과학 방법은 없다.” 또한 “예측과 반증 모두 과학을 정의하기에는 불충분한 기준”이다(pp.256-257).

진화 및 창조 관련 견해는 모두 과학이 자연세계와 경험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분야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따라서 초자연적인 영역이 과학의 영역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 자연주의적 진화, 비목적론적 진화, 계획된 진화는 **현상과 경험적 자료의 자연적 원인과 설명**을 찾는 과업이 과학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도된 진화, 오래된 지구 창조, 젊은 지구 창조는 **자연 현상과 경험적 자료의 원인과 설명**을 찾는 과업이 과학이라고 주장한다. 여러 분은 위 문장에서 단어 하나의 위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아차렸을 것이다(pp.257-258).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 과정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것”이 과학의 전제로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저자는 질문한다(p.259). 기원 문제를 다루려는 과학에서는 특히 문제가 된다. 어떻게 과학을 정의하고 기원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자는 파악하고 있다(p.264). 기원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은 과학과 종교 사이의 전쟁이 아니다. 그보다는 과학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연결된 전쟁이며, 종교에 기대거나 종교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철학적인 전쟁이다” (p.271). 기원 논쟁은 결국 다음과 같은 2가지 근본 질문으로 압축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1)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2) 만약 존재한다면, 그는 자신의 피조 세계와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pp.271-272)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부록이 있는데, 책에서 제시한 6가지 기원 모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비교하였으며, 창세기 1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간단히 정리하였고, 책 본문에 나오는 전문용어를 풀이해 놓은 용어 해설이 첨부되어 있다. 내용 이해에 많은 도움

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은 특히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한국기독교과학자회에서 번역하였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 모임은 필자도 교류한 적이 있으며 신앙과 전공에 대해 고민하는 신실한 기독교인 과학자들 중심의 모임으로, 주로 생물학 관련 전공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있다. 책의 저자도 식물육종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생물학을 가르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기원 논쟁의 핵심 분야에 해당하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저자와 역자로서 수고한 책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를 가지고 책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관심있는 독자 분들께 자신있게 일독을 추천한다.



#### 글 | 문준호

KAIST 내에 위치한 (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KAIST에서 물리학으로 이학박사,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석사(MA)를 취득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학회 총무를 거쳐 현재 학회 감사를 맡고 있다.